

遊山記로 본 조선조 지식인의 지리산과 한라산 인식*

강정화 | 경상대학교

- 목 차 -

- I. 서언
- II. 지리산과 한라산의 유람 개관
- III. 유산기에 나타난 두 산의 상징적 인식
- IV. 친숙과 낯섬의 공간, 지리산과 한라산
- V. 결어

I. 서언

우리나라의 유산기는 문헌상 고려시대에 처음 등장하나,¹⁾ 본격적인 유산은 조선시대에 와서 행해졌다. 민족의 靈山으로 이름난 백두산·금강산·지리산 등에서 유람이 집중적으로 보인다. 금강산은 약 240여 편의 유산기가 발굴되었는데, 빼어난 경관으로 인해 조선초기부터 가장 빈번한 유람 대상이었다.²⁾ 백두산은 오래 전부터 우리 국토의 祖宗 또는 聖山으로 숭앙받아 왔지만, 18~19세기에 이르러서야 유산이 나타난다.³⁾ 지리산은 조선초기 靑坡 李陞(1438~1498)에게서 첫 작품이 나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15).

1) 이전까지 고려시대 林椿이 쓴 「東行記」가 유산기의 최초 작품이라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1243년에 眞靜國師가 쓴 「遊四佛山記」가 발견되어 훨씬 이전부터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2) 박진영, 「15~17세기 金剛山遊覽記 研究」,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4쪽.

타났지만, 본격적인 유산은 또한 임진란 이후에야 행해졌다.

우리나라 유산기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산은 금강산과 지리산이다. 두 산은 한라산과 함께 三神山으로 불리었다. 본고는 이중 지리산과 한라산의 유산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지식인의 두 산에 대한 인식을 살피고자 기획되었다.

그간의 지리산 유산기 연구는 개별 작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⁴⁾ 이후 역사·지리·생태·민속 등 다양한 분야로의 연구가 확대되었다.⁵⁾ 한라산의 경우, 주로 역사·지리·생태 분야의 연구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자료의 중심에는 유산기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한라산 유산기 연구는 발굴된 전체 작품을 중심으로 한라산 유람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정도에서 진행되었다.⁶⁾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별 연구를 넘어 비교 연구를 시작하려 한다. 국내 산 연구에 있어 유산기를 중심으로 명산 간 본격적인 비교 연구는 금번이 처음일 것이다. 각 산이 지닌 내재적 의미를 탐미하고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산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교 연구를 통한 同異를 밝힐 때 그 정체성 확립에 한 걸음 더 다가

- 3) 김민정, 『18~19세기의 백두산 기행록 및 기행양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3쪽. 이처럼 유람이 늦은 것은 함경도의 험한 산세와 추운 날씨가 그 원인으로 거론되기도 하나, 17세기 후반 淸과의 국경분쟁이 제기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닌다.
- 4) 최강현(1982)의 『한국기행문학연구』에서는 김종직과 조식의 유람록만 인용하였고, 이 외에 鄭錫龍(1986)의 「김종직의 유두류록 소개 한시 연구」, 정우락(1995)의 「남명의 유두류록에 나타난 기록성과 문학성」, 최석기(1995)의 「南冥의 山水遊覽에 대하여」, 강정화(2010)의 「濯纓 金鼎孫의 지리산 유람과 續頭流錄」, 정출현(2011)의 「秋江 南孝溫과 遊山」 등과, 안세현(2007)의 「柳夢寅의 遊頭流山錄 연구」, 전병철(2010)의 「感樹齋 朴汝樑의 지리산 유람과 그 인식」, 최석기(2011)의 「황준량의 기행시에 대하여」, 강정화(2011)의 「靑溪 梁大樑의 지리산 인식」, 頭流山紀行錄, 등이 있다.
- 5) 김아네스, 「한국인의 이상향과 지리산 청학동」, 『동북아문화연구』 20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9; 최원석, 「한국 이상향의 성격과 공간적 특징, 청학동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4집 6호, 대한지리학회, 2009; 김지영, 「지리산 성모에 대한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인식과 태도-지리산 유람록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4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10.
- 6) 윤미란, 「조선시대 한라산 遊記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석사학위논문, 2008; 고운정, 「조선시대 한라산 유산기와 등담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갈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를 위한 첫 단계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II장에서 지리산과 한라산의 유산기를 중심으로 두 산의 유람을 개략적으로 살필 것이다. III장에서는 두 산에 투영된 조선조 지식인의 상이한 인식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형성된 원인을 IV장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삼신산으로 일컬어졌던 지리산과 한라산에 대한 조선조 지식인의 인식들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두 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금강산과의 비교 연구가 병행된다면, 조선조 문인이 인식한 삼신산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에도 일조할 것이다. 나아가 여타 국내 명산과의 비교 연구로 확산된다면 유산문학 또는 山嶽文化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다. 이 글이 그 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지리산과 한라산의 유람 개관

우리나라의 유산문학은 조선조에 형성되었다. 국토 인식이 고조되고 감식안이 높았던 조선초기부터 전국의 명산이 유람 대상으로 부상하였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려는 지적 욕구와 함께 많은 유산기가 산출되었다. 후기로 가면서 유산은 더욱 성행하였고, 작품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⁷⁾ 이러한 대략적인 추세는 지리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리산 유산기는 지금까지 100여 편이 발굴되어 완역 및 완간되었다.⁸⁾ 이를 시대별로 분류하면 15세기 6편, 16세기 5편, 17세기 15편, 18

7) 이종목, 「遊山の 풍속과 遊記類의 전통」, 『고전문학연구』 12집, 한국고전문학회, 1997, 385~389쪽.
8) 지리산 유산기 번역서로는, 최석기 외, 『선인들의 지리산유람록』(2000), 돌베개; 최석기 외, 『용이 머리를 숙인 듯 꼬리를 치켜든 듯』(2008), 보고사; 『선인들의 지리산유람록 3』(2009); 『선인들의 지리산유람록 4』(2010); 『선인들의 지리산유람록 5』(2013); 『선인들의 지리산유람록 6』(2013)이 있다.

세기 19편, 19세기 33편, 20세기 24편이다. 후기로 갈수록 그 수가 폭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세기는 주로 金宗直과 그의 문인에게서 유람이 보인다.⁹⁾ 뒤이어 士禍期를 거치는 16세기 중반까지는 유산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¹⁰⁾ 17세기에 들어와 지리산 인근 영·호남의 지식인에게서 유산이 나타난다. 兩亂 이후 出仕보다는 退處를 선택한 이들이 지리산을 올랐는데, 대표적 인물로는 호남지역의 邊士貞·梁大樸·趙緯韓이 있고, 영남에는 朴汝樑·朴敏·成汝信 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특히 18세기에 이르면 慶尙右道를 중심으로 한 지리산권역 지식인에게서 유산기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수치상 보면 19~20세기의 유산기가 전체 분량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 이는 遊山詩도 마찬가지인데, 이전과 달리 유람 일정이나 코스 확인이 가능한 聯作詩 및 長篇詩도 30여 편이나 발굴되었다.¹¹⁾ 이는 이 시기에 지리산 유람이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인조반정 이후 零落했던 지리산권역의 학문이 이 시기에 이르러 크게 일어나 수많은 학자가 배출되었고, 그들에 의해 지리산 유람이 성행했기 때문이었다. 당파와 학맥을 초월한 당시의 학문적 분위기로 인해 지리산 인근 곳곳에 거주하던 학자들이 어울려 유람했던 기록이 여럿 보인다.¹²⁾ 요컨대 지리산 유람은 8할 이상이 지리산권역 지식인에 의해 행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리산 유람의 동기나 유람자의 성향을 살피는 것과도 매우 밀접하다. 예컨대 지리산 유람의 동기는 크게 ① 지리산권역에 부임하거나 공무로 왔다가 산행하는 경우, ② 지리산 속이나 자락에 살면서 오르는 경우, ③ 벗이나 친·인척을 찾아가는 기회에 산행을

9) 金顯孫·南孝溫·金宏弼·鄭汝昌·曹偉·俞好仁·崔忠成·洪裕孫·楊浚 등에게서 확인된다. 김일손과 남효온은 유람록을 남겼으며, 조위와 유효인은 스승 김종직의 지리산 유람에, 정여창은 김일손의 유람에 동행하였고, 그 외 인물은 남효온의 『智異山日課』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이 시기는 南冥 曹植의 『遊頭流錄』이 보인다.

11) 강정화, 「한말 지식인의 지리산 유람」, 『동방한문학』 53집, 동방한문학회, 2012, 61~64쪽.

12) 권오영, 「19세기 江右學者들의 학문동향」, 『남명학연구』 11집,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1, 167~178쪽; 최석기, 「喚醒 朴致馥의 南冥學 繼承樣相」, 『남명학연구』 23집, 2007, 235~260쪽.

접하는 경우, ④ 지리산권역 사찰에 공부하러 왔다가 오르는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①은 함양군수 金宗直, 진주학관 金駟孫, 남원부사 柳夢寅, 長城縣令 梁慶遇, 안음현감 朴長遠, 순창군수 宋光淵 등에게서 나타나고, ③은 함안사람 趙性濂과 黃道翼 등에게서, ④는 斷俗寺에서 공부하다가 유람에 나선 李陸 등에게서 보인다. 그 외 대다수의 유산기는 ②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호남 지식인에게서 보인다. 지리산은 우리나라의 靈山으로 숭앙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리산권역 지식인에게 특히 각광받는 지역의 명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현재까지 발굴된 한라산 유산 기록은 모두 10여 편 정도이다. 선행연구 성과를 섭렵하면서, 이들 작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대	유산자	작품명	유산 시기	유산자 신분	유산 동기
16세기	林梯	南溟小乘	1578.02.10~02.16	개인 유람	개인적 유람
17세기	金尙憲	南槎錄	1601.09.24~09.25	안무어사	산신제
	金綴	遊漢擎山記	1609.04.08~04.09	제주관관	개인적 유람
	李增	南槎日錄	1680.03.19~03.20	안핵 겸 순무어사	산신제
	金聲久	南遷錄	1680.03.19~03.20	정의현감	산신제
18세기	李益泰	知瀛錄	1694.08.16~08.20	제주목사	개인적 유람
	李衡祥	南甯博物	1702.04.15	제주목사	개인적 유람
	趙觀彬	遊漢擎山記	1732.04.01	유배인	개인적 유람
19세기	李源祚	遊漢擎山記	1841.07.10~07.11	제주목사	개인적 유람
	崔益鉉	遊漢擎山記	1875.03.27~03.29	유배인	개인적 유람
	金羲正	漢擎山記	1895.05.05~05.07	제주민	개인적 유람

위 표를 통해 한라산 유람의 몇 가지 특징들을 적출할 수 있다.

첫째, 한라산 유산기는 현재까지 16~19세기에 걸쳐 모두 11편이 발굴되었다. 16세기 1편, 17세기 5편, 18세기 2편, 19세기 3편이다. 17세기에 5편이 발굴되었으나, 이증과 김성구의 유산이 같은 일정의 동행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시대별 회차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유산기 저자는 대개 제주에 부임한 관원이거나 유배 온 지식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19세기의 김희정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

들은 모두 외지인이다.

셋째, 유람의 동기는 公務와 개인적 유람으로 뚜렷이 양분되어 나타난다. 예컨대 관원의 경우는 공무의 일종인 산신제를 지내러 한라산에 올랐다가 유람을 겸하였는데, 김상헌·이증·김성구의 유산이 이에 해당된다. 제주관관 김치와 제주목사 이익태·이형상·이원조의 유산은 공무 여가에 이루어진 개인적 유람으로, 특히 이형상은 한라산의 특이한 자연풍물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성 일정이었다. 제주에 유배 온 조관빈·최익현은 해배되어 돌아가기 전 삼신산 유람에 대한 오랜 염원을 풀고자 한라산에 올랐다. 이외의 나머지 두 인물, 곧 林梯는 당시 제주목사로 있던 부친 林錫을 방문했다가 한라산을 올랐으며, 김희정은 유배 온 최익현에게 수학한 인물로 한라산 유산기를 남긴 유일한 현지인이다.

넷째, 유람 일정이 당일이거나 많아도 3일을 넘지 않는 짧은 일정이며,¹³⁾ 따라서 유산기의 분량 또한 장편이 없다. 산신제가 목적이라면, 새벽 산신제를 위해 전날에 올라 백록담 주변에서 노숙하고 하산하는 이틀간의 일정이 나타난다. 개인적 유람 또한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산신제 일정과 달리 당일 유람이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유람 일정이 짧았던 것은 한라산에 민가나 산사 등 숙박을 해결할 장소가 거의 없어 노숙이 불가피했고, 따라서 한여름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백록담 주변의 기상 변화를 유람자가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¹⁴⁾

다섯째, 무엇보다 한라산 유산기의 특징은 遊記體의 형식과 특징을 지닌 단일 작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위 표에서 김치·조관빈·이원조·최익현의 작품인 「遊漢拏山記」와 김희정의 「漢拏山記」를 제외한 나머지는 엄격한 의미에서 보자면 독립된 유산기가 아니다.

임제는 부친을 찾아 1577년 11월 9일 제주 朝天館에 도착한 후 해

13) 林梯의 경우 6박7일의 일정이나, 이는 정상 등람을 포기하지 못했던 임제 일행이 계속되는 기상 악화로 인해 5일 동안 尊者庵에서 발이 묶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14) 고윤정, 앞의 논문, 29~30쪽 참조.

안선을 따라 제주 안의 모습과 풍물을 모두 유람하였다. 그의 『南溟小乘』은 전라도 나주를 출발하면서부터 1578년 3월 3일 제주를 떠날 때까지의 일정을 기록한 일기체 형식의 기행문이다. 『南槎錄』은 김상헌이 濟州按撫御使로 발령받아 한양을 떠나는 1601년 8월 13일부터 이듬해(1602) 1월 25일 제주를 떠나 2월 14일 歸京하기까지의 기록이다. 제주의 풍물·形勝·陳狀·군역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고, 산신제를 거행하고 난 이후의 유람 일정을 ‘山祭’편에 수록하였는데 특히 한라산과 관련한 이전 기록들을 모두 수렴하여 비교해 기술하였다.

『南槎日錄』은 李增이 제주안핵 겸 순무어사가 되어 1679년 10월 27일 한양을 출발, 이듬해 4월 4일 제주를 떠나기까지 5개월간의 일기체 기록이다. 김성구는 1679년 7월 濟州牧 旌義縣監에 부임하여 1681년 10월 임기를 마치고 제주를 떠났는데, 그의 『南遷錄』은 이 시기에 저술한 일기체 형식의 기록이다. 『남천록』 속 유산기는 그가 이종의 산신제에 獻官으로 선정되어 참석하였다가 한라산을 유람한 기록이다. 『知瀛錄』은 1694년 7월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익태가 1696년 9월까지 제주에서의 여정을 수록한 것이다. 이형상은 1702년 6월 제주목사로 부임했다가 이듬해 6월 파직되었다. 『南宦博物』은 재임 기간 조사했던 제주의 풍물과 고적 등을 모두 37개 항목으로 정리한 일종의 博物志이다. 제주도 및 그 주변 도서의 자연과 역사·산물·풍속·방어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요컨대 위 기록들은 이들이 물에서 도입한 이래 경험했던 제주 전반에 관한 저술이며, 한라산 유산기는 그 기록의 일부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리산과 한라산을 오른 유람자들은 두 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두 산의 유산기에 나타난 두 가지 상이점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유산기에 나타난 두 산의 상징적 인식

1. 이상향으로서의 仙界

주지하듯 지리산과 한라산은 삼신산의 하나로 일컬어져 왔다. 삼신산과 관련한 중국의 기록은 司馬遷의 『史記』에 처음 전한다.

齊 威王과 宣王, 燕 昭王 때부터 사람들을 시켜 바다로 가서 蓬萊山·方丈山·瀛洲山을 찾도록 하였다. 이 세 神山은 전설에 의하면, 渤海 가운데 있고, 인간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배가 닿을까 걱정되어 얼른 바람을 이용해 배를 떠밀어 버렸다. 일찍이 그곳에 갔다 왔던 사람들은 ‘많은 仙人과 不死藥이 모두 그곳에 있고, 온갖 물건과 날짐승·길짐승은 모두 흰색이요, 황금과 은으로 궁궐을 만들었으며, 도착하기 전 멀리서 바라보면 온통 雲海지만 막상 삼신산에 도착하니 도리어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으며, 그곳에 닿으려 하면 바람이 문득 불어와 배를 떠밀어서 끝내 그곳에 도착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¹⁵⁾

위 기록에 의하면, 삼신산은 바다에 떠있으며, 仙人이 살고, 불사약이 있으며, 인간세상과 멀리 있지 않지만 또한 쉽게 찾을 수 없는 신비의 공간이다. 때문에 삼신산은 戰國時代부터 줄곧 불로장생을 꿈꾸는 자들의 이상향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그 삼신산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전해졌다. 봉래산은 금강산에, 방장산은 지리산에, 그리고 영주산은 한라산에 비의하여 일컬어졌다. 李圭景에 의하면, ‘방장산’이란 명칭은 신라·고려 때부터 전해졌다고 하였다.¹⁶⁾ 대개 唐代 杜甫의 시에 ‘방장산

15) 司馬遷, 『史記』 권28, 「封禪書」. “自威宣燕昭 使人入海 求蓬萊方丈瀛洲 此三神山者 其傳在渤海中 去人不遠 患且至 則船風引而去 蓋嘗有至者 諸僊人及不死之藥 皆在焉 其物禽獸盡白 而黃金銀爲宮闕 未至望之如雲 及到三神山 反居水下 臨之風輒引去 終莫能至云”

1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 地理類, 山, 「智異山辨證說」. “且說者 以爲三神山皆在我東 而方丈爲智異 瀛洲爲漢拏 蓬萊爲金剛 自羅麗傳道 如是 則或可劈髯耶”

은 바다 건너 三韓에 있네'라 하였고 또 그 註釋에 '방장산이 帶方郡 [남원]에 있다'고 한 설¹⁷⁾이 알려지면서, 지리산은 삼신산의 하나인 방장산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문헌으로는 조선초기에 이르러야 이러한 인식이 나타난다. 한라산을 영주산이라 한 인식 또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조선조 지식인에게서 주로 보인다.

이처럼 '삼신산'으로 일컬어지는 두 산은 '仙界'라는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리산과 한라산은 인간세상과 다른, 그러면서도 쉬이 갈 수 없는 선계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두 산에 투영된 '선계' 인식은 동일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지식인이 지리산에서 찾은 대표적 선계는 靑鶴洞이다. 공간적 범주로는 대개 하동 쌍계사·불일암 일대 및 三神洞까지 겹치고 있다. 조선조 지식인에게 있어 지리산 청학동은, 孤雲 崔致遠이 신선이 되어 청학을 타고 날아가 영원히 살고 있다는 선계이며,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들만의 이상향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줄곧 청학동을 찾아 이곳으로 들어왔고, 특히 임진란 이후 소외된 이들이 집중적으로 찾아들었다.¹⁸⁾ 최치원의 일화와 이곳의 빼어난 자연경관이 지리산의 선계로 인식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感樹齋 朴汝樑이 '쌍계사 팔영루 아래의 맑은 물에 발을 씻고, 아득한 옛날의 儒仙을 불러 보고, 천 길 절벽에서 학의 등에 올라타고서 仙境을 유람하는 것을 평생의 숙원으로 여겼다'¹⁹⁾고 한 말에서처럼, 이곳 선계로의 유람은 지식인의 선망이었다.

쌍계사에서 서쪽으로 5리쯤 가자, 길이 다하고 돌길이 가팔랐다.
바위에 사다리를 갈고리로 매어놓아 남여를 메기 어려웠고, 다른 사

17) 杜甫의 『奉贈太常張卿垺二十韻』 첫 구절에 보인다.

18) 강정화, 「지리산 유람록으로 본 최치원」, 『한문학보』 25집, 우리한문학회, 2011, 194~199쪽 참조. 許穆·邊士貞·梁大撲·成汝信·趙緯韓·梁慶遇·金之白·申命壽·吳斗寅·鄭弼·宋光淵·黃道翼·金道洙 등이 이곳을 청학동으로 인식하고 유산기를 남겼다.

19) 『感樹齋集』 권6, 『頭流山日錄』, “足濯八詠樓下之清波 喚儒仙於千古之上 乘鶴背於千仞之壁 以償吾平生宿債”

람이 부촉할 수도 없었다. 각자 벼랑을 안고 넝쿨을 부여잡으며 엉금 엉금 기어서 앞으로 나아갔다. 한참 만에 한 동네가 나왔는데, 이른바 청학동이라는 곳이다. 신령스런 경계가 그윽하고 깊으며, 나무꾼들이 다니는 길이 희미하게 나 있었다. 세상에 전하기를 ‘崔孤雲은 죽지 않고 아직도 이 청학동에 살아 있다’고 한다……천 길 폭포가 떨어져 鶴湫로 들어가니, 또한 쉽게 만날 수 없는 아름다운 경관이다.²⁰⁾

위 기록으로 보아 청학동은 경치가 빼어날 뿐 아니라 인간이 쉬이 갈 수 없는 선계이다. 더구나 청학을 타고 날아간 최치원이 아직도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말로써 신비감을 불러일으킨다. 실제 유산자들은 이곳의 작은 암자에 안치된 최치원의 畫像을 통해 천 년 전 신선의 풍채와 도인의 궤범을 느꼈고, 불일암 주변의 절경을 통해 자신이 인간 세상을 벗어나 物外에서 노니는 듯한 착각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래서 “우뚝한 산봉우리는 첩첩이 막혀 있고, 대나무 숲은 싱그러웠다. 그 옛날 秦나라 세상을 피해 숨은 백성들의 모습과 흡사하였다. 어찌하면 이런 곳에 풀을 베어 터를 잡고 내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²¹⁾라고 하여, 그곳에서의 은거를 염원하였다. 이곳으로의 유람은 이상향의 선계로 이끄는 것이었다.

반면 한라산에 투영된 선계는 위 『史記』의 인용문에 보다 근접한 모습이다. 인용문 속 영주산은 바다 위 섬에 위치하고, 운해로 뒤덮여 있으며, 인간 세상과 멀리 떨어지지 않았지만 쉬이 갈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신비의 공간이다. 때문에 오랜 기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아 고립된 곳이었기에 마치 不死草를 먹고 장생하는 신선이 사는 선계로 인식되었다. 이는 한라산의 외형적 조건과도 상통한다. 이로 인해 한라산에는 신선사상과 결부된 선계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 진시황이 徐市

20) 宋光淵, 『泛虛亭集』 권7, 「頭流錄」. “行五里許 路窮磴側 石棧鈎連 難以輿擔 不要人扶 緣崖攀藤 匍匐而行 得一洞府 卽所謂青鶴洞者也 靈境幽深 樵路微茫 世傳孤雲不死 尙在此洞云……千丈飛瀑 下入鶴湫 亦不易得之佳境”

21) 申命考, 『南溪集』 권3, 「遊頭流續錄」. “峰巒重阻 竹林蕭灑 有若昔時避世之秦民 安得誅茅卜居於此中 以送吾餘年耶”

와 童男童女를 보내 찾도록 했다는 不死鄉이 바로 한라산이었다는 전설이 전해졌으며,²²⁾ 특히 흰 사슴과 관련한 백록담 전설은 이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여름밤이면 사슴들이 산골짜기에 와서 물을 마십니다. 근처에 있던 山尺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물가에 엎드려 있었는데, 사슴 떼가 달려 오는 것을 보니 그 수가 천백이나 되었습니다. 그중 제일 큰 사슴은 색깔이 희었고, 그 사슴의 등위에는 백발노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산 척은 놀라고 괴이하여 범하지를 못하고, 다만 뒤쳐진 사슴 한 마리를 쫓아 죽였습니다. 잠시 후 사슴에 탄 노인이 사슴 무리를 점검하는 것 같더니, 길게 휘파람을 한 번 불자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²³⁾

이는 임제의 『南溟小乘』에 전하는 이야기로, 한라산의 정상 백록담에 얽힌 대표적인 일화이다. 임제가 尊者庵의 승려에게서 들은 한라산 전설에 불과하지만, ‘하얀 사슴, 백발의 신선’ 등은 한라산과 신선사상과의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는 키워드이다. 이는 『사기』 속 삼신산에 산다는 짐승이 온통 흰색이며, 仙人과 불사약이 많이 있다고 한 것에도 상통한다. 결국 『남명소승』에 전한 백록 이야기는 이후 한라산 선계의 성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단서가 되었고, 이후의 유산자들은 이를 반복해서 기록함으로써 더욱 고착화시켰다.

예컨대 김상헌의 『남사록』에서는 사냥꾼이 백록을 잡은 일이 있다고 하였고,²⁴⁾ 金緞의 유산기에서는 “골짜기 속에 하얀 사슴이 있는데, 瀛洲草를 먹는다. 가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니, 이곳이야 말로 신선이 사는 땅이다.”라 하였고,²⁵⁾ 19세기 최익현은 한라산 백

22) 홍순만, 『徐福集團과 濟州島』, 제주문화원, 2002.

23) 林梯, 『南溟小乘』. “夏夜則鹿就澗飲水 近有山尺 待弓矢伏澗邊 見群鹿驟來 數可千百 中有一鹿 魁然而色白 背上有白髮翁騎着 山尺驚怪不能犯 但射殘落後一鹿 少頃騎鹿 如有點檢群鹿之狀 長嘯一聲 因忽不見”

24) “牧使梁士瑩李慶祿時 虞人嘗獲白鹿 前後罕有見者”

25) 『遊漢擎山記』, “修淨告余曰 洞裡有白鹿 食瀛洲草 往往人或見之 此實神仙所居之地也”

록담을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노닐 곳으로 인식하였다.²⁶⁾

요컨대 지리산과 한라산은 범박한 의미에서 보자면 삼신산의 仙界로 인식되어 온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지리산은 청학동의 신선 최치원의 일화에다 빼어나고 장엄한 자연경관이 더해지면서 조선조 지식인이 羨望하는 선계로 인식되었다. 반면 한라산은 외형적 조건으로 인해 문헌 속 삼신산의 신선사상과 결부되어, 특히 白鹿이나 선녀 등의 일화가 얹힌 선계로 인식되었다. 결국 삼신산의 선계로 함께 일컬어지면 서도 두 산에 투영된 선계는 동일하지 않았던 것이다.

2. 사람의 산과 신선의 산

지리산과 한라산은 시기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으나, 모두 산신제를 지내던 명산이자 남방의 鎮山이었다.²⁷⁾ 또한 지리산은 백두에서 흘러내린 산맥이 남방에 이르러 맺힌 산이라 하여 ‘두류산’으로 불리었고, 한라산도 조선후기에 이르면 백두산에서 흘러내린 기맥이 바다 속으로 이어져 솟아난 산으로 인식되었다.²⁸⁾ 최익현이 ‘백두산을 근원으로 하여 남쪽으로 4천 리를 달려 靈巖의 월출산이 되었고, 남으로 달려 海南의 달마산이 되었으며, 달마산은 또 바다로 5백 리를 건너 추자도가 되었고, 다시 5백 리를 건너서 이 산이 되었다’²⁹⁾고 하였으니, 19세기 까지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류산’이란 명칭에 얹힌 지리산 인식은 고려 말 신진사대부에서부터 나타나고, 조선조 지식인들에게서 특히 집중적으로 나타난다.³⁰⁾ 한라산의 경우는

26) 崔益鉉, 『勉庵集』 권20, 『遊漢拏山記』. “最上白鹿潭 乃羣仙降遊之地”

27) 지리산은 신라 때부터 국가 의례로 제사를 지냈던 반면, 한라산은 조선 태종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사를 지내게 된다. 김아네스, 『산천제의 역사와 지리산』, 『지리산의 종교와 문화』,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3, 50쪽; 『태종실록』 18년 4월 11일조 참조.

28) 李睟光, 『芝峯類說』 권2, 地理部, 山.

29) 崔益鉉, 『勉庵集』 권20, 『遊漢拏山記』. “蓋茲山根於白頭 南走四千里 爲靈巖月出山 又南走爲海南達摩山 達摩渡海五百里 爲楸子島 又五百里 西起于大靜 東止于旌義 中聳爲絕頂 東西二百里 南北百里強 或曰山至高 可挹天漢 故謂之漢拏”

조선후기 풍수사상과 결부되면서 나타난 인식이라 할 수 있다.³¹⁾

그러나 지리산과 한라산에 대한 조선조 지식인의 인식은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먼저 지리산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거론해 보자면, 첫째, 지리산은 임금 또는 天帝의 산이다.

이 산은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흘러 내려 磨天嶺·磨雲嶺·鐵嶺 등이 되었고, 다시 뻗어내려 동쪽으로는 五嶺·八嶺이 되고 남쪽으로는 竹嶺·鳥嶺이 되었으며, 구불구불 이어져 호남과 영남의 경계가 되었으며, 남쪽으로 방장산에 이르러 그쳤다. 이 산을 ‘두류산’이라 한 것이 이런 연유 때문에 더욱 극명해진다. 하늘에 닿을 듯 높고 웅장하여 온 산을 굽어보고 있는 것이 마치 天子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형상과 같으니, 천왕봉이라 일컬어진 것이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³²⁾

박여량의 언급대로라면, 지리산은 백두에서 발원하여 뻗어 내린 산으로, 백두산이 천상의 산이라면 지리산은 지상에 있는 최고의 산이다. 백두산이 祖宗인 하늘의 제왕 같은 산이라면, 지리산은 제왕의 자손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天孫 같은 산이다. 특히 웅장하게 솟아있는 천왕봉은 마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천자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듯 지리산 천왕봉을 천자의 형상에 견주어 畏敬하는 모습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浮查 成汝信이 천왕봉에 올라 아래로 여러 산들을 굽어보며 “호남의 서석산과 월출산, 江右의 가야산과 자굴산, 고개 숙이고 엎드려 있어, 첩이나 신하와 다를 바 없네”³³⁾라고 하여, 호남과 강우 지역의 여러 산들을 마치 임금을 향해 고개 숙인 첩이나 신

30) 최석기, 「조선시대 士人들의 지리산·천왕봉에 대한 인식」, 『남도문화연구』 21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1, 81쪽.

31) 오상학, 「조선시대 한라산의 인식과 그 표현」, 『국토지리학회지』 40집 1호, 국토지리학회, 2006, 130쪽.

32) 朴汝樑, 『感樹齋集』 권6, 『頭流山日錄』, “茲山發於白頭山 流而爲磨天磨雲鐵嶺等 關關東爲五嶺八嶺 南爲竹嶺鳥嶺 逶迤而爲湖嶺之界 南至方丈而窮焉 以其頭流者 以此而尤極 穹隆雄偉 俯臨諸山 如天子臨御宇內之像 其稱以天王者 無乃以此耶”

33) 成汝信, 『浮查集』 권2, 『遊頭流山詩』, “湖南之瑞石月出 江右之伽伽閣岫 低頭而屈伏 無異乎臣妾”

하 같다고 하였다. 그는 세상에서 높다고 자부하거나 혹은 이름 없는 산들을 모두 천왕봉을 향해 엮드린 백성들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於于 柳夢寅(1559~1623)은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서서 “동쪽의 천 봉우리 제후처럼 복종하고, 남쪽의 만 리 능선 천자가 순행하듯. 큰 깃발 높은 깃발 군대가 사열한 듯, 날고뛰는 참마. 북마 천리마가 나열한 듯. 조정의 많은 관리들 품게 따라 정렬한 듯, 사해의 빛나는 보배 조정에 가득한 듯”³⁴⁾이라고 하여, 천왕봉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모든 형상을 천자와 견주어 표현하였다. 천왕봉은 백두에서 뻗어 와 국토의 남단에 자리 잡은 그 위용만으로도 이미 제왕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곳에 올라 아래로 세상을 조망하는 자라면 온 세상을 품은上帝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방장산 위의 제일봉을. 이 봉우리 한 번 오르면 만 리를 보고 온 세상을 품게 되지. 하늘은 높은 줄을 모르고 세상이 넓은 줄만 알지. 산은 겹겹이 늘어 서고 바다는 넘실넘실 물결치네. 보잘것없는 이 한 몸 높이 올라 사방을 바라보니, 무엇인들 우리 가슴 속에 포용하지 못하랴”³⁵⁾라고 한 시구에서 보듯, 經世濟民의 이상을 지닌 지식인이라면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 國泰民安을 염원하는 천자의 마음을 품게 된다고 하였다.

둘째, 지리산은 道德君子가 은거하던 名賢의 산이다.

아! 방장산이 높고도 웅장한 勝景을 간직하고도 우리나라에 치우쳐 있어 그 이름이 천자가 封禪하는 산에 끼이지 못하고, 한갓 진시황과 漢武帝가 바지를 건어 올리고 불사약을 찾는 탄식을 불러일으켰을 뿐이었다. 비록 그것이 한스러워할 만한 일인 듯하지만, 연단술

34) 柳夢寅, 『於于集』後集 권2, 『遊頭流山百韻』. “千山東散詣侯服 萬里南馳天子巡 大嶽高牙森隊仗 飛驂舞服列騏驎 朝班濟濟千官品 庭實煌煌四海珍”

35) “君不見方丈山上上上峰 一上此峰使人萬里眼八荒胸 天不覺高只覺大覆之有餘 山重海重重 余乃一身渺然而高視兮 孰非吾人腔子裡所包容”. 승려 應允(1743~1804)의 『頭流山會話記』에 나오는 시로, 1803년 8월 당시 옥천군수와 함양군수 일행이 지리산을 유람한다는 소식을 듣고 실상사에서 만나 그들과 다수의 시를 주고받았는데, 이는 그중 옥천군수가 지은 것이다.

을 익힌 崔文昌, 고결한 韓錄事, 박식하고 단아한 佔畢齋·濯纓, 도학을 밝힌 一蠹·南冥 같은 여러 선생들이 연이어 승경을 찾아 이 산에서 노닐거나 깃들어 살았다. 그 이름이 만고에 남아 이 산과 더불어 영원히 전해질 것이니, 또한 어찌 이 산의 다행이 아니겠는가?³⁶⁾

유산기 속 지리산 인물이라면 바로 위 인용문에서 일컫는 최치원·韓惟漢·金宗直·金駟孫·鄭汝昌·曹植 등이 있다. 최치원·한유한·정여창·조식은 은거처를 찾아 지리산에 들어와 살았던 인물이고, 김종직·김일손·조식은 지리산을 유람하고 유산기를 남겼다. 이들은 지리산에 뚜렷한 족적을 남김으로써 이곳을 찾는 후인들에게 지리산의 인물로 인식되어 왔다.

수백 년 동안 지리산을 오른 유람자들은 지리산의 같은 공간에서 이들을 만났고, 이들로 인해 지리산도 후인에게 기억되었다. 김종직·김일손·정여창·조식 등은 조선조 지식인에게 숭앙의 대상이었다. 선현들이 은거했던 곳이나 행적이 남아 전하는 유적지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삶과 처세를 회고하고, 나아가 자기 삶의 指南으로 삼고자 하였다. 지리산 유산자들은 자신의 유산을 통해 그들과 공감하려 하였다. 선현들의 유산을 자신의 유산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 선현의 유산과 동일시하여 자신들의 유산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 하였다. 이렇듯 수백 년 간 지리산 유산을 통해 형성된 조선조 지식인의 집단적 기억은 지리산을 이들 명현과 동일시한 명산으로 같이 인식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한라산은 III-1장에서 거론한 것처럼 신선사상과 결부된 神山으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바다 위 운해 속에 우뚝 솟은 험준한 모습은 신선이 사는 신비로운 산으로 인식되었다. 오랜 기간 사람의 잦은 발길이 어려웠고, 게다가 후인들의 유산을 이

36) 河益範, 『土農窩集』 권2, 『遊頭流錄』. “噫 以若方丈之崇高雄勝 僻在海東 名不登於天子之禪封 徒起秦漢君寰裳之歎 雖若可恨 而修鍊如崔文昌 高潔如韓錄事 博雅如佔畢·濯纓 道學如一蠹·南冥諸先生 踵武搜勝 徜徉棲息於其中 名留萬古 與之齊壽 亦豈非茲山之幸歟”

끝 만큼 한라산에 족적을 남긴 명현도 없었다. 따라서 한라산에 대한 인식은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 속 영주산의 모습 그대로 상상하고 형상화될 뿐이었다.

이처럼 ‘신선사상’과 연계한 한라산 형상은 ‘영주산’ 외의 여러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김상헌은 『남사록』에서 한라산을 ‘小天台山’이라 이름하여, 신선이 사는 산으로 이름났던 중국 천태산에 비유하였다. 또한 한라산은 일찍부터 신선이 사는 圓嶠山으로 불리었는데,³⁷⁾ 李元鎮은 『耽羅志』에서 한라산을 원교산의 동쪽에 있다는 ‘東巫小峽’으로, 제주를 영주산의 동쪽에 있다 하여 ‘東瀛洲’로 일컬었다.³⁸⁾ 이는 모두 한라산을 ‘신선의 산’으로 인식한 증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제에서부터 金羲正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간의 한라산 유산기는, 유산자들이 물에서 접한 못 산과는 다른 독특한 神山으로만 인식하였기에 유산 시 보고 확인한 것들에 대한 사실적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관심이 있었음에도 가볼 수 없었던 신비하고 새로운 것을 접한 호기심의 기록이라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후대로 갈수록 앞 시대의 유산기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예컨대 임제가 『남명소승』에서 한라산 곳곳의 모습을 형용한 기록에 대해 후대의 김상헌이 한라산을 유람하면서 조목조목 이를 비교 수정하여 기록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이형상의 『남환박물』에서 더욱 세세하고도 팝진하게 드러나는데, 그는 『남명소승』뿐만 아니라 제주 및 한라산과 관련한 이전의 문헌기록을 망라하여 비교 서술하고 있다.

수많은 조선조 문인들의 발길이 닿았던 지리산은 오랜 기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상징적 의미가 지속적으로 투영되었던 반면, 한라산은 독특한 지형 위치로 인해 형성된 ‘신선의 산’이라는 상징적 의미만이 적출되고 있다. 지리산과 한라산은 이렇듯 전혀 다른 산이었다. 때

37)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濟州牧, 山川.

38) 李元鎮, 『耽羅志』, 濟州, 古蹟.

문에 두 산의 유산기에 드러나는 인식 또한 전연 다르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IV. 친숙과 낯섬의 공간, 지리산과 한라산

지리산은, 지리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남방에 위치한 保障 이자 鎭山에 해당한다. 김종직은 “아, 두류산은 숭고하고도 빼어나다. 중국에 있었다면 반드시 嵩山이나 岱山보다 먼저 천자가 올라가 封禪을 하고, 玉牒의 글을 봉하여 상제에게 올렸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武夷山이나 衡岳에 비유해야 할 것이다”³⁹⁾라 하였고, 宋光淵이 지리산은 “우리나라 제일의 산일 뿐만이 아니다. 비록 이 세상의 그 어떤 큰 산이라 할지라도 이 산과 대등할 만한 산은 없을 것이다. 공자께서 이 산에 오르셨다면 천하도 크다고 여기기에 부족했을 것이다”⁴⁰⁾라고 한 것이나, 지리산권역 단성사람 朴來吾(1713~1785)가 “모인 氣가 넓고 크며 영·호남에 걸쳐 웅거하고 있다. 그 높이로 말하자면, 위로 乾門의 赤帝의 궁궐에까지 닿아 있다. 그 크기로 말하자면 아래로 地軸의 玄神의 도읍까지 진압하고 있다. 포괄한 것이 길게 이어져 있고, 펼쳐진 것은 넓게 뻗어 있으니, 이는 참으로 해동의 중심이며 남방의 祖宗이다”⁴¹⁾라고 한 인식들은 모두 지리산이 지닌 웅대한 위상을 증언하고 있다.

때문에 지리산 유산기에는 민족의 靈山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을 오른다는 자부심이 곳곳에 표출되어 있다. 조선조 지식인에게 있어 지리산 유람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소문으

39) 『佔畢齋集』 권2, 『遊頭流錄』. “嗚呼 以頭流崇高雄勝 在中原之地 必先嵩岱 天子登封金泥玉牒之檢 升¹⁾中于上帝 不然 則當比之武夷衡岳”

40) 『泛虛亭集』 권7, 『頭流錄』. “非但東國之爲第一山 雖以天下之大 無可等列於此山者 若使尼父登臨 則天下不足大也”

41) 朴來吾, 『尼溪集』 권12, 『遊頭流錄』. “鍾氣磅礴 雄據湖嶺 而其高也 上逼於乾門赤帝之宮 觀其大也 下壓乎坤輿玄神之都府 包括綿長 排布廣遠 則此誠海東之標極 天南之祖宗也”

로만 들어오던 명산으로서의 지리산에 대한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런데 다음 글을 읽어보자.

-이 고을[남원]에 살며 일상 속에서 매일 仙山을 바라보고 있지만, 몇 발작 걷기 싫어 올라 유람하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홍금을 씻어내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趙緯韓, 「遊頭流山錄」, 남원 거주)

-나의 집이 龍城[남원]에 있고, 용성이 지리산의 10분의 1쯤을 차지한다 할 수 있다. 옛사람들이 여러 해 동안 바다를 건너고 시간을 들여 찾으려고 했던 이 산이, 버젓이 내가 사는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니, 이 또한 나에게서는 과분한 복이로다. 다만 세속의 발자취에 구애됨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 명승을 두루 찾지 못했다. 지난번에 올라 간 곳은 겨우 반야봉 한 방면이었을 뿐이니, 여태껏 내 마음에 차지 않았다. (金之白, 「遊頭流山記」, 남원 거주)

-나는 인근의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세속의 쓸데없는 일에 사로잡혀 구름 너머로 우뚝 솟은 산을 바라만 볼 뿐, 그 진면목을 직접 보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 (黃道翼, 「頭流山遊行錄」, 함안 거주)

-나는 이 산 인근에서 태어나 자라며 우뚝하니 솟은 푸른 산을 눈만 뜨면 바로 볼 수 있었는데도 나이 마흔이 되도록 아직 그 정상에 올라 유쾌함을 맛보지 못했다. (河益範, 「遊頭流錄」, 진주 거주)

인용문 속 유산자들은 늘 곁에 지리산을 두고서 매일 쳐다보면서도 찾아가보지 못했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거주지에서 확인되듯 이들은 대개 지리산을 鄉里로 두었거나 지리산 자락에 은거해 살았던 인물이다. 실제 조선시대 지리산 유산기는 지리산권역 지식인에게서 월등히 많은 양이 산출되었다. 이는 앞서도 서술했듯 지리산권역에 그만큼 인물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리산에는 정여창·조식 등 그들이 숭양하던 선현의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지리산을 중심에 두고서 살펴보자면, 동쪽 산청권역의 인물로는 덕산에 은거했던 조식을 비롯하여 鄭弼·申命壽·朴來吾·裴瓚·金永祚·閔在·南·柳文龍·李甲龍·盧光懋 등이 유산기를 남기고 있다. 함양권역에는

김일손과 함께 지리산을 유람했던 정여창을 비롯하여 朴汝樑이 있으며, 하동권역에는 옥중에 거주했던 河達弘 등이 있으며, 진주권역에는 成汝信·朴敏·河益範 등이 있고, 남원권역의 인물로는 양대박을 비롯해 邊士貞·趙緯韓·金之白·金成烈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함안에 거주했던 黃道翼·安致權·趙性謙 등이 있고, 함천사람 朴致馥·鄭載圭·許愈 등도 덕산의 남명 유적지와 대원사 방면을 따라 천왕봉에 올라 유산기를 남겼다. 이외에도 지리산 유람이 확실시되는 인물까지 합하면 그 수는 엄청나게 늘어난다.⁴²⁾ 이들은 인근에 위치한 지리산으로의 유람이 보다 용이했으며, 또한 이는 지리산을 그만큼 친숙하게 여겼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리산권역 지식인에게 있어 지리산은 우리 민족의 靈山임과 동시에 내 고장의 명산이었다. 가까이 있기에 늘 敬畏하면서도 쉽게 찾아 나서지 못하는, 그렇지만 언제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친숙한 존재이다. 때문에 이들의 유산기에는 지리산 밖에서 우러르다가 한 번 올라서는 벅찬 감회를 표출하는 이들과 달리 지리산에 대한 지나친 칭송이나 유산에 대한 過한 기대감보다는 내 고장에 있으니 오른다는 친숙하고 담박한 표현들이 자주 보인다.

또한 지리산권역 지식인의 지리산 유람은 대개 단발성이 아니다. 조식만 하여도 12차례나 지리산을 올랐다고 피력했으며, 양대박 또한 4번의 유람이 확인되며, 성여신은 지리산을 포함해 진주 인근의 명산을 두루 유람하였으며, 정식은 지리산 곳곳에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만큼 지독한 遊覽癖이 있었다.

특히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이르면 동일 인물이 여러 차례 지리산 유람에 동행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컨대 이 시기 하동의 溪南 崔淑民은 1887년 8월 老柏軒 鄭載圭의 유람에 함께 하였고,⁴³⁾ 1901년 4월 文晉鎬의 유람⁴⁴⁾에도, 그리고 1902년 5월 李宅煥의 유람⁴⁵⁾에도 참

42) 강경화 외, 『지리산 한시 선집, 천왕봉』, 이회, 2009; 『지리산 한시 선집, 청학동』, 이회, 2009.

43) 鄭載圭, 『老柏軒集』 권32, 『頭流錄』.

44) 文晉鎬, 『石田遺稿』 권2, 『花岳日記』.

45) 李宅煥, 『晦山集』 권9, 『遊頭流錄』.

여하였다. 최숙민의 지리산 인근으로의 유람은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⁴⁶⁾ 1877년 8월 后山 許愈의 유람에 동행했던 南川 李道默은 문진호의 유람에도 함께 하였고,⁴⁷⁾ 기타 정재규의 경우도 이 시기 여타 지리산 유산기에 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⁴⁸⁾ 이들은 지리산 자락에서 지리산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한라산 또한 지리산과 마찬가지로 이전부터 그 명성이 익히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渡海 과정상의 위험 등으로 인해 부임 또는 유배 형식의 ‘강제적 유람’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마저도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일이어서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일정이었다.

백여 리쯤 갔을 때 바람이 마구 뒤집고 바다가 험악하여 큰 물결이 하늘로 솟구쳤다. 돛대꼭지가 잠겼다 드러났다 하면서 半空의 뜬 구름과 함께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배 안의 사람들이 온통 구토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절반이 넘었다. 나 역시 선실로 들어와서 누웠더니 마치 그네를 탄 것 같았다.⁴⁹⁾

이는 임제가 제주로 들어갈 때 해로의 험악함을 기록한 부분으로, 험한 백길의 고생스러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관원이나 유배자는 한양에서 출발하여 배를 타기까지 나주·해남·강진 등의 육로와 해상에서의 위험까지, 제주로 가는 길은 결코 어느 것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음이 없었다.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제주 일정은 어느 곳에서든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새롭고 낯선 경험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한라산’ 유산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이 인식한 ‘한라산’은 우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해외의 낯선 공간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낯선 공간에 도착해 이들이 본 풍물과 모습은 그야

46) 강정화, 『溪南 崔瑑民의 紀行詩』, 『동양한문학연구』 32집, 동양한문학회, 2011, 38~60쪽.

47) 許愈, 『后山續集』 권5, 『頭流錄』; 文晉鎬, 『石田遺稿』 권2, 『花岳日記』.

48) 그는 허유와 이택환의 유람 등에 동행하였다.

49) 『南溟小乘』, “行百里許 風顛海惡 大浪擊天 危檣出沒 與半空浮雲 相互低昂 舟中人之嘔吐 不起者過半 余亦入臥蓬底 如在秋千上”

말로 모두가 새로운 것들이었다. 거기에 지식인의 지적 호기심이 더해지면서 그들은 낮선 공간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겼다. 한라산 유산기는 그 낮섬의 일부 기록일 뿐이다.

낮선 공간 한라산에 대해 그 낮섬을 가장 먼저 드러낸 것은 오르기 전의 한라산에 대한 인상이었다. 金緻는 바다에서 멀리 한라산을 바라보니 그다지 험준하지 않은 듯하다고 한 후 “세상에서 이른바 瀛洲라는 곳이 이 산이다. 삼신산의 하나인데 어찌 이름과 실체가 서로 부합하지 않을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란 귀로 듣는 것만 귀히 여기고 눈으로 보는 것을 천하게 여겨서인가? 어찌 가서 살피고 따져 의혹을 깨뜨리지 않았는가?”⁵⁰⁾라고 하였다. 곧 그들이 물에서 익히 듣고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한라산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혹은 한라산 유산의 동기로 작용하는데, 趙觀彬⁵¹⁾과 李源祚⁵²⁾에게서도 똑같은 인식이 발견된다.

제주의 어딘들 낮설지 않았을까마는, 그들이 유산 시 접한 한라산의 모습은 또한 물에서 본 여느 산과는 전혀 다른 낮선 공간이었다. 때문에 서술표현에 있어서도 여느 유산기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다. 백록담 기록을 예로 들어 본다.

-한라산 정상부의 봉우리 형세가 절벽과 같아서 용출한 것처럼 보이고, 구덩이처럼 함몰되어 못이 되었으며, 둘레는 7-8리쯤 된다. 물은 유리와 같고 깊이는 측정할 수 없으며, 못 가에는 하얀 모래와 풀들이 있다. (임제, 『남명소승』)

-백록담 정상은 함몰되어 내려앉은 것이 마치 솔과 같으며, 동쪽 가에는 높고 낮은 바위 돌들이 우뚝 서 있다. 그리고 산꼭대기의 흙빛같은 모두 人家에 있는 불에 탄 벽의 흙과 같다. (金尙憲, 『南槎錄』)

-사방은 峰巒으로 둘러싸여 솔 갈기도 하고 성곽갈기도 하다. 둘레

50) 『遊漢拏山記』, “世之所謂瀛洲者 卽此山而居於三山之一 豈名實之不相符耶 抑人情之貴耳賤目而然耶 盍往探討 以破疑惑”

51) 『遊漢拏山記』, “此山乃所謂瀛洲 而居三神之一 豈名與實之不相符耶”

52) 『遊漢拏山記』, “余莅此州 日寢處望京樓上 前對拏山 在几案間 不甚高峻 可狎而玩也”

는 10여 리나 되고, 깊이는 8백 척이나 되는데, 그 밑이 백록담이다. 圓徑은 4백 보이고, 수심은 몇 길에 불과하다. 물이 불어도 항상 차지 않는데, 源泉이 없는 물이 고여 못이 된 것이다. 비가 많아서 양이 지나치면 북쪽 절벽으로 스며들어 새어나가는 듯하다. 고기도 없고 풀도 없으며 못가에는 모두 깨끗한 모래뿐이다. (李衡祥, 『南宦博物』)

세 기록은 모두 한라산의 정상 백록담 모습을 마치 신기하고 새로운 것을 본 관측자의 입장에서 아주 세세히 묘사하고 있다. 수심, 모양새, 주변의 경관, 심지어 흙 빛깔까지 물의 여느 산에서는 보지 못한 낯선 모습들이다. 그리고 시대 순으로 인용한 세 기록은 같은 공간을 묘사하고 있음에도 약간씩 다르게 표출되고 있다. 이는 이전 기록을 비교하여 서술하는 한라산 유산기만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이며, 제주 또는 한라산을 접한 유산자들이 시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낯선 공간으로 여겼다는 증빙이기도 하다. 한라산 유산기는 산에 내재된 인문학적 산수를 유람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이처럼 새로운 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예컨대 지형·지세·토양·식생 등 자연경관에 대한 서술이 지배적이다.

조선조 지식인들은 한라산을 바다 건너에 있는 仙界로 인식하여 그곳으로의 유람을 오랫동안 염원해 왔지만, 또한 그곳은 언제나 낯선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부임 또는 유배를 통해 유산할 기회를 얻었지만, 한라산 유람 못지않게 한라산이 위치한 ‘제주’ 섬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버리지도 못하였다. 이들에게 있어 한라산은 제주와 별개가 아닌, 동일한 ‘낯선 공간’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실제 그들의 한라산 유람은 제주로의 命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산의 유산기가 지닌 뚜렷한 차이점이기도 하다.

V. 결어

이상으로 현재까지 발굴된 지리산과 한라산 유산기를 중심으로 두 산에 투영된 조선조 지식인의 인식 등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

를 정리하고 그 의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지리산과 한라산은 일찍부터 삼신산의 仙界로 인식되어 왔으나, 두 산에 투영된 인식은 전연 다른 것임을 확인하였다. 지리산은 조선초기부터 수많은 유람자가 올랐고, 특히 지리산권역 지식인에게 선호받았던 지역의 명산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선망하고 숭앙했던 역대 명현들의 족적이 남아 전하는 역사적 공간이었다. 따라서 조선조 지식인이 인식한 지리산은 이들 명현에 기반한 士의 이상향이었으며, 그만큼 내 몸 가까이, 내 의식 가까이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친숙한 존재였다.

한라산은 독특한 위치 환경으로 인해 줄곧 신선사상과 연계한 신비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게다가 지리산처럼 자유로이 언제든 유산이 가능한 곳도 아니었다. 때문에 부임 또는 유배 형식을 빌려 극히 소수의 인원만이 기록을 남길 뿐이었다. 그 기록 속 한라산 또는 제주는 언제나 낯선 공간이었다. 기후·식생·풍물 하나까지도 모두 낯선 경험이었기에 여느 유산기와는 다르게 아주 세세히 기록하고 있다.

사실 수백 년에 걸쳐 나타나는 두 산의 유산기를 통시적 관점에서 개괄하는 본고의 논의는 애초 무리수를 안고 있었다. 작품의 양적 차이, 수세기의 시간적 격차, 유람자 개개인의 특성 등 동일한 기준선에서 출발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모두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지리산과 한라산의 유람문학과 관련한 비교 연구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본고가 향후 각 산의 비교 연구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각 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연구의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史記』, 『新增東國輿地勝覽』, 『五洲衍文長箋散稿』, 『芝峯類說』
강정화 외, 『지리산 유산기 선집』, 브레인, 2008
_____, 『지리산 한시 선집, 천왕봉』, 이회, 2009
_____, 『지리산 한시 선집, 청학동』, 이회, 2009
김봉옥, 『옛 사람들의 登漢拏山記』, 제주문화원, 2000
최석기 외, 『용이 머리를 숙인 듯 꼬리를 치켜든 듯』, 보고사, 2008
_____, 『선인들의 지리산유람록 3』, 보고사, 2009
_____, 『선인들의 지리산유람록 4』, 보고사, 2010
_____, 『선인들의 지리산유람록 5』, 보고사, 2013
_____, 『선인들의 지리산유람록 6』, 보고사, 2013
_____, 『선인들의 지리산유람록』, 돌베개, 2000
홍순만, 『徐福集團과 濟州島』, 제주문화원, 2002
강정화, 「溪南 崔瑛民의 紀行詩」, 『동양한문학연구』 32집, 동양한문학회, 2011
_____, 「유람록으로 본 지리산 유람과 그 형상」, 『지리산과 한국문학』, 보고서, 2013
_____, 「지리산 유람록으로 본 최치원」, 『한문학보』 25집, 우리한문학회, 2011
_____, 「한말 지식인의 지리산 유람」, 『동방한문학』 53집, 동방한문학회, 2012
고윤정, 「조선시대 한라산 유산기와 등람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권오영, 「19세기 江右學者들의 학문동향」, 『남명학연구』 11집,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1
김아네스, 「한국인의 이상향과 지리산 청학동」, 『동북아문화연구』 20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9
김민정, 「18~19세기의 백두산 기행록 및 기행양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석사학위논문, 2006

- 김지영, 「지리산 성모에 대한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인식과 태도-지리산 유람록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4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10
- 박진영, 「15~17세기 金剛山遊覽記 研究」,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오상학, 「조선시대 한라산의 인식과 그 표현」, 『국토지리학회지』, 40-1, 국토지리학회, 2006
- 윤미란, 「조선시대 한라산 遊記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석사학위논문, 2008
- 이종목, 「遊山の 풍속과 遊記類의 전통」, 『고전문학연구』 12집, 한국고전문학회, 1997
- 최석기, 「晩醒 朴致馥의 南冥學 繼承樣相」, 『남명학연구』 23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7
- _____, 「조선시대 士人들의 지리산·천왕봉에 대한 인식」, 『남도문화연구』 21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1
- 최원석, 「한국 이상향의 성격과 공간적 특징, 청학동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4-6, 대한지리학회, 2009

A Study on Intellectuals' Perceptions of Mt. Jiri and Mt. Halla through their Excursion Accounts during Joseon

Kang, Jeong-hwa

This study presents an investigation into the perceptions of Joseon intellectuals projected into Mt. Jiri and Mt. Halla with a focus on their excursion accounts. There are approximately 100 excursion accounts on Mt. Jiri excavated so far, and more than 80% of them were written by the intellectuals that lived in the Mt. Jiri region. There are 11 excursion accounts on Mt. Halla written by government officials dispatched to Jeju Island or out-of-town intellectuals exiled to the island.

Mt. Jiri and Mt. Halla have long been considered as the Zen the world of Mt. Samshin but had completely different perceptions projected into them. Mt. Jiri was climbed by many intellectuals from the early days of Joseon and was favored especially by the intellectuals in its region as a celebrated mountain. It was a historical place where the legacy of noted sages respected and admired by them was passed down. The Zen world and symbolism of the mountain perceived by intellectuals during Joseon were all established as its extension. The mountain was familiar to them, being close to their bodies and intimate with their consciousness.

Mt. Halla had been regarded as the space of mystery in connection to the Taoist ideology of Mt. Samshin in China due to its unique location and environment. Furthermore, free excursions to the mountain at any time were not possible unlike those going to Mt. Jiri. This is why only an extremely small number of people left its records in the form of appointment or exile. In those records, the mountain was always described as a strange place. Since everything about it including climate, vegetation, scenery and customs evoked strange experiences for them, they documented them in great detail unlike the mountains on land.

Key words: Mt. Jiri, Mt. Halla, mountain excursion account, Mt. Samshin, Zen world, celebrated mountain

■ 이 논문은 2014년 5월 16일 투고되고, 2014년 6월 12일 심사 완료되어 2014년 6월 13일 게재 확정됨.

КСІ